

### 파킨슨병특집

# 파킨슨병의 치료와 예방

파킨슨씨병은 뇌의 깊숙한 곳(중뇌; 흑질)의 신경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다. 따라서 흑질에 있는 세포가 분비하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감소해 운동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며 수족을 떨게 되는 질환이다.

파킨슨씨 병의 치료 방법을 대별해 보면 (1)흑질신경세포의 감소되는 속도를 완화 또는 정지시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물치료; (2)부족한 도파민을 증가시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3)작용기전은 불분명하지만 파킨슨씨병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제; (4)도파민 결핍에 따라 기능이 항진된 신경계통에 병변을 만들어 균형을 유지시키는 수술적 치료 방법; (5)보존적인 치료 방법 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한 환자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연령, 직업, 장애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환자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일상 생활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 증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인지 왕성한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증상개선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따라 각 환자마다 투여할 약물의 종류와 각 약물의 투여 용량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여러 증상 중에 환자에게 가장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운동이 느린 증상이다. 그러므

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주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좋은 파킨슨씨 병 치료법이다.

#### (1) 흑질의 신경 세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흑질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경세포의 감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80년대 초 MPTP라는 독성 물질이 흑질 신경세포에 선택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며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0년대 초 이 MPTP 라는 독성 물질을 투여하기 전에 Seregilin이라는 약물을 투여한 경우 흑질 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알려졌으며 파킨슨씨 병에 걸린 초기 환자에게 투여하였다

#### (2) 도파민 결핍을 보충해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치료

##### 1)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



이 명 식  
(연세의대 신경과 교수)

#### 인 레보도파 치료

흑질의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파킨슨씨 병이 생긴 환자에게 1970년대부터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인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투여하였다. 이 약물은 모든 파킨슨 증상을 개선시키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

갑자기 약효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면 손발이 뒤틀리거나 흔들리는 증상이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끔적이면 초기 환자에게는 소량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레보도파는 주로 경구 투여하는데 장의 운동과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

#### 2)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파킨슨씨 병이 진행하게 되면 도파민의 원료인 레보도파를 투여해도 도파민으로 만드는 흑질세포가 많이 감소하여 도파민으로 만들지 못하므로 약효를 나타내기 어렵다. 또한 도파민 대사 과정에서 흑질세포에 유해한 물질이 생기므로 흑질 세포수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작

른 약물들은 직접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므로 흑질세포에서 대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약리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약물 중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bromocriptine(브로모크립틴)과 pergolide(페르고라이드)이다. 이런 약물들은 약효가 약하기 때문에 단독 투여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레보도파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레보도파를 소량만 사용해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고용량이 레보도파를 장기간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레보도파보다 작용 시간이 길므로 안정적인 호전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작용기전은 불분명하지만 파킨슨씨 병 증상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제

##### 1) 아만타딘(amantadine)

아만타딘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약제이다. 한 노인병원에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원 환자에게 아만타딘을 투여하였는데 그 중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던 환자에서 아만타딘 투여 후에 파킨슨씨 병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관찰되어 이후 파킨슨씨 병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약리 효과는 도파민 길항제들과 유사한 정도이다.

<199호에서 계속>

## 파킨슨씨병의 원인은 흑질 신경세포 숫자의 감소 흑질 신경세포의 감소 원인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신경세포 감소 근본적 예방·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아

니 파킨슨씨 병의 진행 속도가 늦추어 진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seregilin은 미약하지만 파킨슨씨 병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이 약제는 1년 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주로 초기 파킨슨씨 병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는 약물이다. 처음에 실용화되었을 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약물로 평가받았고 당시까지 흔하게 시행되던 파킨슨씨 병에 대한 신경외과적인 치료 건수의 격감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레보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 약물 작용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어떤 환자들은

용하는 부위(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도파민을 투여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도파민은 외부에서 뇌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뇌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개발된 약물들이 도파민 길 항체(agonist)이다. 이

중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던 환자에서 아만타딘 투여 후에 파킨슨씨 병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관찰되어 이후 파킨슨씨 병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약리 효과는 도파민 길항제들과 유사한 정도이다.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으로 고생하십니까?

당뇨환자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은 당뇨성 신경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 팔다리에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증이 나타나며 배뇨가 곤란해진다.
- 이런 증상은 신경조직의 손상이 원인이므로 신경조직을 재생시켜 주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제는 당뇨병으로 손상된 신경조직에 활력을 줍니다.

비타민제는 당대사를 촉진하며 신경세포의 ATP대사에 작용하는 베포타아민,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엽산 피리독신, 신경해의 합성 및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시아노코발라민 등의 신경비타민이 고단위로 함유되어 있어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 비타민제 50mg 1캡셀당 성분·함량
- 베포타아민.....69.15mg
- 엽산피리독신.....50mg
- 시아노코발라민.....500µg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 치료제



표준소매가격 : 50mg, 100캡셀/23,000원



'비타민제'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2동 656-408  
한일약품(주) 마케팅부 '비타민제' 담당자  
전화문의 : (02) 4609-786-8